

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중요의 미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 1. 18.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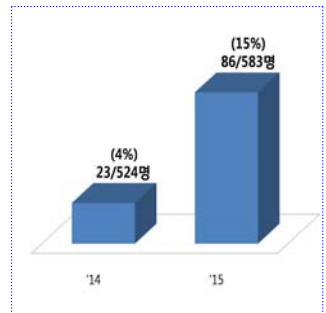
I.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1
II. 정책 환경 및 대응 방향	4
III.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문화유산 가치 증진 및 국민 공감 확산	7
2. 문화유산 전승 및 관리 강화	11
3.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참여 확대	15
4.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19
IV.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	23
 <참 고> 문화재청 일반 현황	25

I 주요 정책성과 및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가. 문화재 예방 및 보존·관리체계를 고도화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56건) 집중관리 및 돌봄사업 운영 체계화·전문화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 모니터링 강화 및 정기조사 법정 주기 단축(5년→3년), 유형별 정기조사 매뉴얼 마련
 - 돌봄사업 모니터링·평가('15.6월~'11월), 문화재수리 자격증 소지자 고용 확대('14년 23명⇒'15년 86명)



[자격증 소지자 배치 확대]

- 문화재 수리 정보 공개 및 법령 정비로 투명성·공정성 강화
 - *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의 날」 (20개소) 및 「문화재 수리 실명제」 운영
 - * 문화재수리 제도에 적합한 입찰제도 도입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
 - * 수리자격증 일제조사 실시 (33건 적발⇒3개사 행정처분, 30개사 현지시정 등/15.3월) 및 민·관 합동 수리현장 점검 (4회, 220개소 점검⇒261문제 지적, 226건 조치 완료, 진행 중)

나.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문화재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환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불편 해소
 -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의 일관성, 허가 처분사유의 구체성 확보
 - * 「문화재 유형별 역사문화환경 현상변경 검토 기준」 마련 (15.5.26)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정 추진 ('15.7월~)
 - * 서울 경희궁지' 등 30건 선정·시범 재조정 (15.3월)
 -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신청인의 의견진술 및 재심 기회 부여
 - 중요민속문화재 고택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완화
 - * 지붕 처마에 빗물받이 및 물흙통 설치기준 추가로 생활불편 해소 ('15.11월)
- 국가지원을 통한 문화재와 주민의 상생 기반 조성
 - 첫 주민지원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본격 착수 ('15년 국비 80억원)

다. 문화유산 교육을 다양화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진작

- 문화유산교육 수혜대상 및 홍보 다양화로 한민족 정체성 강화
 -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 찾아가는 문화유산교육('15년 1,750명), 창의체험학교 우수 수업안 책자 발간·보급 (1,700부, 방문교육 학교 등)
 - 지상파 및 케이블 등 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홍보 채널 확대
 - * KBS 6시 내고향, 광복 70주년 다큐 등 12개 TV 프로그램 제작 지원
 - * LGU+ 등과 MOU 체결로 외부 플랫폼 확대(16개→20개), 해외홍보 강화(31개 재외문화원 콘텐츠 보급, NGC 조선왕릉다큐 19개국 방영 등)
- 역사·문화 대표브랜드화 및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4대궁·종묘·도성을 종합 활용한 '제1회 궁중문화축전' 개최 ('15.5월)
 - * 궁궐의 유·무형유산과 현대 기술·예술 결합(관람객 종합만족도 85.23점, 지속 필요성 94.03)
 - '문화가 있는 날' 궁·능 무료개방 확대, 고궁 야간특별관람 확대 ('14년 42일→'15년 48일)
 - * 11월말 기준 무료관람 14.4% 증가(445만명→509만명), 야간특별관람 46.3% 증가(12만 7천명→18만 6천명)
 - '생생문화재' 확대('14년 70개→'15년 103개 사업),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내실화 ('14년 38개소→'15년 71개소) * 258개 프로그램 3,500여회 진행

라. 문화유산의 국제수준을 높이고 협력기반을 강화

- 유네스코의 선진적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으로 문화유산 다양성 확보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15.3.27.)
 - * 무형문화재 범위 확대 (기·예능→전통지식, 생활관습, 구전전통 및 표현 등 7개 분야), 긴급보호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및 진흥정책 강화
- 세계유산 등재 및 대외협력 확대로 국제위상 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7월), 세계기록유산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10월), 인류무형문화유산 (줄다리기, 12월) 등재
 - 양자교류 (중국, 베트남 등) 및 대표단 교류 (중국, 베트남)
 - 문화재청·외국 소장자 간 협상을 통한 환수 (덕종어보·덕해옹주 유품 7점 등, 3건 9점), 한·미 수사공조 환수 (문정왕후어보·현종어보 반환 합의, 2건 2점), 외국 경매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불교문화재 적기 구입 (직지사·범어사 불화, 2건 4점)

2. 개선할 점

□ 문화재 상시점검 및 안전관리 고도화 지속 실현

- 중점 관리 대상 문화재의 상시관리 미흡, 돌봄단체의 지자체 일임 회계 감사 방식 등 문제점 노출, 문화재 예방적 안전관리 중요성 증대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의 모니터링·환류를 강화하고 돌봄사업의 교육 및 지도·감독기능 강화, 안전관리 현장의 ICT를 활용한 방재기반 강화로 안전 사각지대 보완

□ 주민 친화적 문화재 환경 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

- 문화재 경관관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규제에 대한 주민 보상요구 등 여전히 다양한 갈등 요인 존속
⇒ 규제에서 조성으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 합리적 주민 보상방안 마련,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건축가·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등
- 문화재 품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발전 방향성 제시 미흡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중장기 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필요

□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 대표 인기프로그램이 관람 허용 인원 부족(창덕궁 달빛기행, 야간특별관람 등 관람권 조기매진) 또는 일회성 행사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성장성 미흡
⇒ 고궁 대표 인기프로그램 운영 기간 확대 및 각 궁궐별 특성을 살린 정례 프로그램 도입 필요
- 다전 위주의 지역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원 및 보수·복원에 그치는 소극적 지역문화유산 지원 방식에 따른 경쟁력 한계 노출
⇒ 향교서원, 생생문화재 등 지역문화유산을 인문정신 함양 및 관광사업 연계로 고급화·차별화 및 고도(古都) 핵심유적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

□ 전략적 국제협력 및 세계유산 홍보 강화

- 전략적으로 유리한 양자교류 대상국과 MOU 체결 및 세계유산 홍보기반 구축 지속 필요
⇒ 세계유산위원국·무형유산위원국 중심으로 신규 양자대상국 선정,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UNESCO 등) 공조 유인 및 세계유산별 특화 활용콘텐츠 개발

II 정책 환경 및 대응 방향

□ 국정 2기, “문화융성” 정책 기조 유지 및 문화유산의 역할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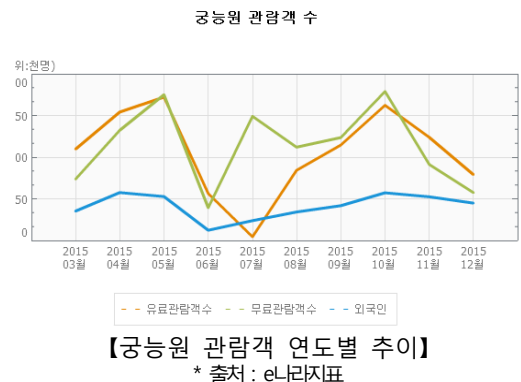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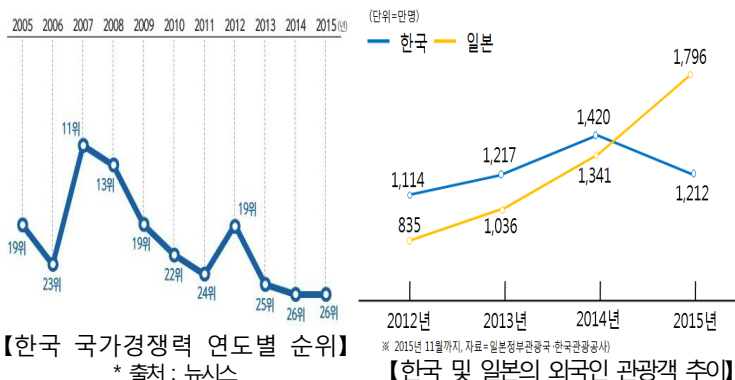
- 문화융성 핵심정책은 ‘우수한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새로운 가치 창출’
 - * 전통문화에 기반한 국가브랜드 개발, 한류영역 확대 및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문화가 있는 날’ 및 세대별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등이 문화융성의 방안
- 문화융성 정책에 부응, 고품격 문화유산 대표브랜드 개발,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 · 보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한중일 ‘동북아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15.11.1.)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 문화유산교육 확대 · 제공 필요

< 문화융성 관련 VIP 주요말씀 요지>

- °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15.8.10.)
 - 문화융성은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창조적 계승이 전제되어야 함
 - 전통문화 분야별 핵심인물을 발굴하여 세계와 교류하고 발전시킬 해법을 찾아야 함
- °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사(‘15.8.15.)
 - 전통문화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산업과 문화를 융합, 우리 경제를 일으키는 한 축으로 만들어야 함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경제의 도약을 이끌 성장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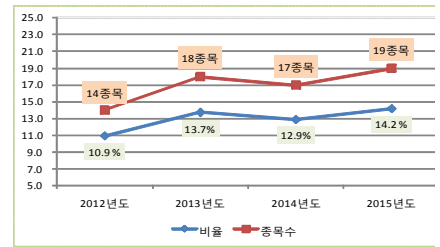
□ 문화유산 프로그램의 고급화 · 차별화 및 다양화 요구

- 고궁 및 조선왕릉 등 핵심 문화유산을 관광자원 킬러콘텐츠로 지속 육성 필요
 - * 15년 다보스포럼 국가경쟁력 순위 26위로 저조 및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에 추월되었으며, 공 · 능원 관람객 또한 '15년 10월 이후 하락 추세 (고급화 · 차별화 전략 필요)
- 인문정신 함양과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문화유산의 관광자원 개발 · 확산
 - * 향교 · 서원 활용사업, 지역기반 문화유산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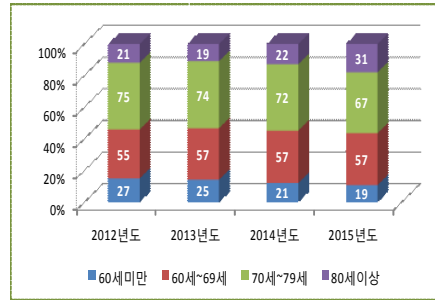


□ 전승환경 악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및 제도 변화 노력 필요

-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령화 등에 따른 전승단절 위기 극복
 - 개방형 전승자 충원, 보유자 복수 인정, 취약종목 전승 활성화 지원 등
- * 보유자 부재 14.2%(134종목 중 19종목),
80세 이상 보유자 17.8%(174명 중 31명)
- 새로운 무형문화재법 시행(16.3.28.)에 따른 종목 분류 및 지정기준 등 제도 개선
 - 전통지식 등 신규 분야 지정 준비,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전수교육관 미입주 종목 지원을 통한 전승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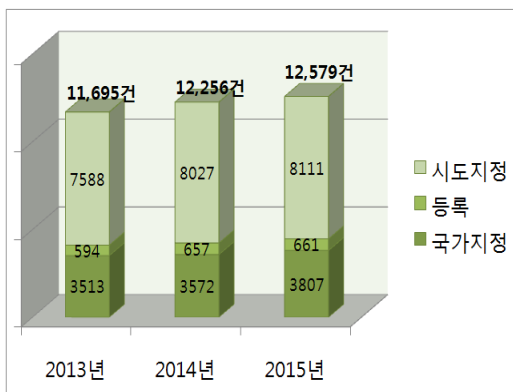
【보유자 부재종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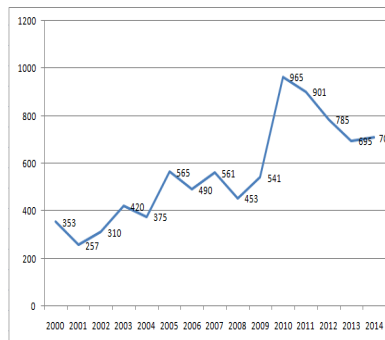
【보유자 연령 분포】

□ 급증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수요에 적합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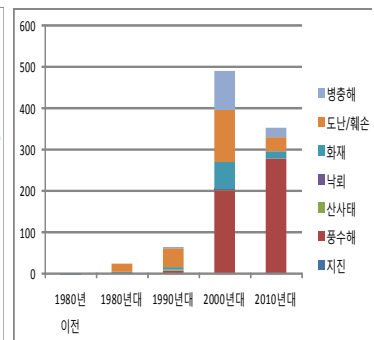
- 지정문화재 증가, 자연·사회재난의 대형화·복잡화 등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 가중
 - * 지정문화재 수 추이 : (‘13년) 11,962건, (‘14년) 12,256건, (‘15년) 12,579건
 - * 재난발생 빈도가 2000년대 이후 전체 약 62% 차지하고 문화재 피해도 급증
 - 2000년대 이후 문화재 재난이력이 85.6%(857/1001건) 차지
-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2017~2021)」 수립 등 거시적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 사후복구에서 예방 중심의 일상유지관리 체제 유지, 설비(하드웨어) 구축 중심에서 전문인력과 ICT기술을 활용한 운용체제(소프트웨어) 등 고도화된 방재환경 조성 필요



【지정(등록)문화재 현황】



① 주요 자연재해 발생추이 (태풍, 호우, 대설) ② 국내 문화재 재난피해이력 현황



【자연재해 발생 및 문화재 피해 현황】

비전

문화유산으로 여는 희망과 풍요의 미래

01 가치증진 및 공감 확산

- *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 재창조
- * 생활 속 문화유산 교육 실현
- *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03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참여

- * 문화재규제 합리화 및 편익 제고
- * 선진적 문화재 정책 구현
- * 문화재보호 국민 참여 활성화



02 전승 및 관리 강화

- * 문화유산 보존 전승 체계 강화
- * 예방적 안전관리 지속 확산
- * 정보기록·연구 강화 및 공개 확대

04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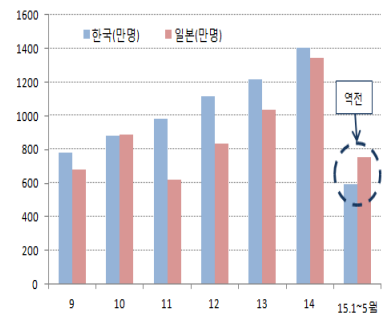
- * 세계유산의 전략적 등재 및 국제협력
- * 국외문화재의 체계적 환수·활용
- * 남북 문화재 교류 협력 활성화

◆ (현 황)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고급화·다양화 및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요구

- 문화융성의 핵심정책(우수한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응하는 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 재창조 요구

- 중국인 등 외래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의 개발과 국민의 고궁 인기프로그램의 확대 요구

- * 2009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로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근 일본방문으로 선회 조짐
- * 창덕궁 달빛기행, 야간특별관람 등 폭발적 수요 증대 (매 표시작 2~3분 만에 매진)



【방한·방일 외국인 현황】
*정부 관광산업 육성대책 15.7.8.

-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16년)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수요 증대

-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현황 : 13년 42개교(1%), '14년 811개교(25%), 15년 2,251개교(80%), '16년 3,214개교(100%) 전체 실시 예정

- 수도권 문화유산 의존도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자원 활성화 흐름 유지

- * 생생문화재 및 향교·서원 활용사업 : 15년 39.5억원→'16년 41.9억원

◆ (추진방향) 문화유산에 새로운 가치 부여, 문화유산교육 확대 및 지역 문화자원의 적극적 개발

- (가치 재창조) 중국인 등 외래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고궁 한류 확산 프로그램 개발, 창덕궁 달빛 기행 등 대표 볼거리의 지속 확대
- (문화유산교육) '자유학기제' 등 청소년 문화유산 교육 강화, 계층별·세대별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다양화
-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천년 고도(古都) 핵심 경쟁력 강화, 지역문화자원 및 스토리자원 개발 사업

「고궁 한류」 창출	대표 볼거리 확대	인문정신 함양
◆ 궁궐 생활상 전시 ◆ 수문장 교대의식 (국방부 협업) ◆ 소주방 음식프로그램 상설화	◆ 궁중문화축전 내실화 ◆ 창덕궁 달빛기행 등 확대 ◆ 고궁 작은 음악회 상설화 등	◆ 관광열차 연계 프로그램 개발 ◆ 향교·서원사업 (자유학기제 연계) ◆ ‘생생문화재’ 사업 확대

□ 「고궁 한류(韓流)」 창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 궁궐 생활상 전시프로그램 ‘정조, 창경궁에 산다’ 개발 (창경궁/4월, 13억원)
- 국방부(전통의장대) · 국립국악원과 협업을 통한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대취타 및 복식 개선 등/연중, 31억원)
- 조선왕조궁중음식 프로그램의 대중화 · 세계화
 - 소주방 활용 궁중음식 전시 ·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복궁 소주방 · 장고/4월~10월, 7억원)
 - * 한류(韓流) 드라마 대장금’ 배경인 소주방 활용, 중국인 등 관광객 적극 유치

□ 대표 볼거리 지속 확대로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공

- 궁중문화축전 내실화(관광주간과 연계/5월, 20억원), 미디어 파사드 상영 확대(궁중문화와 첨단기술 결합/석조전 · 흥례문 권역/11억원)
- 창덕궁 달빛기행 및 경복궁 · 창경궁 야간특별관람 확대 시행
 - * 달빛기행 (32일→49일), 야간특별관람 (48일→120일)
- 고궁 음악회 상설화(경복궁 주간공연 122회, 경복궁창경궁 야간공연 81회/11.2억원), ‘문화가 있는 날’ 궁 · 능 무료개방

□ 인문정신 함양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

- 관광열차 사업과 연계한 문화유산 프로그램 개발 (연 6회 이상, 3월~12월)
 - * 「생생문화재」,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과 코레일 관광열차사업의 연계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문화재 만들기’ (인문정신 함양 및 자유학기제 연계 / 77건, 22.2억원)
-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등 생생문화재 사업 (88건, 20.7억원)
 - * (08년) 4건 1억원 → (14년) 70건 18.3억원 → (16년) 88건 20.7억원 확대 시행

성과목표1-2

생활 속 문화유산 교육 실현

청소년 문화유산교육	계층별 · 세대별 맞춤 교육	정보기술 활용 콘텐츠 보급
- 문화기반 시설 상설 프로그램 (수도권) - 현장 방문 고고학 체험교실 등 (전국)	- 문화소외계층 찾아가는 교육 - 생애주기별 왕실프로그램	- 영상(학생용) · 강의(교사용) 콘텐츠 개발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보급 등 ‘문화유산디지털영상관’ 콘텐츠 제작

☐ 청소년의 미래를 여는 문화유산 교육

- 문화유산 기반시설의 ‘자유학기제’ 상설 프로그램 개발 · 운영
 - 한국의집 ‘청소년 문화유산 자유학기제,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민속극장 풍류 상설공연 ‘이야기 풍류’(9월~10월, 1,500명), 한국문화의 집 ‘놀토야 농악 놀자’ (5월)
 - * 진로탐색활동 (음식조리분야, 전통예술분야, 공연기획자 등)
- ‘고고학 체험교실’ 등 문화유산 현장에서 설계하는 진로(進路) 체험
 - * ‘고고학 체험교실’(2,400명, 1억원) 및 ‘방문교육’(7만명, 7.2억원), 청소년 해양문화유산 진로체험(15회, 0.2억원)

☐ 계층별 ·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 문화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다양화
 - 새터민, 다문화가정, 고려인 등 대상 문화유산교육
 - * 무형문화재 실기수업, 전통예절 및 문화 체험, 역사탐방 등
 - 어린이 및 장애아동 대상 왕실문화유산교육(경북 등 4개 지역/110회, 15억원), 찾아가는 해양박물관(문화소외지역/4회, 0.5억원)
- 생애 주기별 왕실문화프로그램 운영
 - * (유아) 바른 인성과 예절을 키우는 왕실문화 체험교육(28회), (청소년) 중학생의 꿈과 끼를 찾는 궁중 최고요리사’ 체험교실 (6회), (중년여성) 왕실문화 힐링 프로그램(6기), (실버세대) 건강 100세 궁중무용’ 체험교육(4기)

☐ 정보기술(IT)로 접근성을 강화한 교육 콘텐츠 보급

- 문화유산 영상(학생용) 및 강의(교사용) 콘텐츠 개발, 수요자 연령별 맞춤형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작 · 보급(17억원)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3월)
 - * (10대) 교육, (20~30대) 대중성 · 화제성, (40대 이상) 전문성 · 기록성
- ‘문화유산 디지털 영상관’ 콘텐츠 제작 (영상제작 · 3D스캔모델링/3월~12월, 5.5억원)
 - * (11~15년) 한양도성, 석굴암 등 12건 제작 · 활용 / 3D, HMD 등 미디어환경 반영 제작
- 전국 향교 · 서원 안내 어플리케이션 개발 · 운영

성과목표1-3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천년 고도(古都) 핵심경쟁력 강화	지역문화유산자원 발굴	스토리자원 확충
- 고도세계유산 집중정비 및 활용 - 백제유적 복원정비 계획 수립 - 월성 발굴 및 유적 홍보관 건립 - 동궁과 월지 복원 설계	- 민속마을 재창조 모델 구축 - 자연유산 관광자원 개발 - 근대문화유산 재생 시범사업 -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 유형별 이야기자원 발굴 ‘이야기 원천자원’ 개발 (창작 자원) - 활용프로그램 국민 공모전

□ 천년 고도(古都)의 핵심 경쟁력 강화로 문화융성 기틀 마련

- 고도 내 세계유산 집중정비(105억원)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 * 고도(古都) 세계유산 팸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주·백제역사유적지구/4회)
- 백제핵심유적 복원·정비 세부시행계획 수립('15년 기본계획 완료)
-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집중적 발굴 실시('14년~'19년 /1단계) 및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원 공사(해자, 문루, 월성 유적 홍보관 건립·운영(체험형 전시시설, '17년 완공)
 - * 해자(1~5호) : 보안 발굴조사 및 설계(~10월), 착공(12월)
 - * 문루 : 발굴조사('15년~'16년), 설계('17.1월), 착공('17.하반기)
- 동궁과 월지 복원 설계 및 주변정비
 - 실시설계(2월~), 전통조경정비계획 수립(10월)
 - 동편 발굴조사 시행(4월~) 및 주변정비 사업계획 시행(6월)
- 고도유적지와 현대미술작가 융합프로젝트를 통한 고도(古都) 명소화 추진
 - * 황룡사지 레이저 금빛 투사 (지자체와 협업)



□ 지역문화유산 자원 발굴로 관광기반 구축

- 주민주도의 민속마을 재창조 모델 구축
 - * 주민공동체 : 사업 발굴 / 정부 : 멘토링 및 스토리텔링 개발·홍보 지원
- 자연유산으로 즐기는 지역관광자원 개발
 - 자연유산 민속행사(선농단 선농대제 등 65건, 2억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역사 문화지도 개발 등(4.9억원), 대관령 옛길 등 탐방로 정비(12.3억원)
- 근대문화유산 재생 시범사업 추진
 - * 대상 건축물·지역 선정, 전문가 컨설팅 통해 재생플랜 마련(차년도 리모델링 등 예산 지원)
- 문화재 집적 지역의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자체 공모/30억원)

□ 스토리자원 확충을 위한 「이야기로 듣는 문화유산」 개발

- 문화재 유형별 이야기자원 지속 발굴 (3월~12월, 0.8억원)
 - * ('16년) 무형문화재 → ('17년) 민속문화재 → ('18년) 보물 등
- 민간 창작 소재 제공을 위한 '이야기 원천자원' 개발 (3월~12월, 1억원)
 - * ('16년) 웹툰 → ('17년) 플래쉬 파일 → ('18년) 동영상 등
-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국민 공모전'('6~9월, 0.3억원), 및 '전국 학생 문화재 영어해설 경진대회' 개최 (7~11월, 0.2억원)

◆ (현 황)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재행정 수행 및 현장·예방 중심 문화재 관리체계의 안정적 정착 요구 증대

-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전승여건 지속 악화로 능동적·창의적 문화재행정 확대 필요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고령화 및 부재종목 증가, 전승 취약종목의 전승자 충원 어려움
 - * 80세 이상 보유자 17.8%(174명 중 31명), 보유자 부재 14.2%(134종목 중 19종목)
 - 한중일 역사분쟁 심화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성 회복 및 조사·지정 확대를 통한 문화유산의 다양성 개발 필요
- 문화재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상시점검 및 돌봄사업 등)의 지속적 강화, 재난의 복잡화·대형화로 인한 예방적 문화재 관리 필요
 - * 2000년대 이후 문화재 재난발생빈도(62%) 및 재난이력(85.6%) 급증
- 문화유산 지정·관리 핵심 기록정보의 개방 요구 증대 및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문화유산 연구 성과 기대 확산

◆ (추진방향)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을 위한 능동적·창의적 문화재행정 수행

- (보존·전승)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무형유산 보호·전승 기반 선진화, 문화재 전승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불교문화재보존연구원 등) 및 조사·지정 활성화
- (안전관리) 문화재 상시점검 관리체계 정착, 현장과 예방 중심의 문화재 재난안전망 강화
- (정보기록·연구)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기록의 지속 축적 및 문화재 주요 정보의 공개 활성화, 융·복합기술을 이용한 보존·복원 연구 성과 창출 및 해양문화유산 연구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촉진	고궁 · 왕릉의 역사성 복원	조사 · 지정 및 관리 체계화
- 인센티브(포상) 제도 시행 (실적제)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 전승자 확충 및 전승체계 개선	- 경복궁 흥복전 복원('15년~'18년) - 덕수궁 복원('14년~'39년) - 동궐 관련 고증 연구 및 왕릉 복원	- 자연유산의 체계적 조사 · 지정 - 국가지정문화재 등 조사 확대 - 불교문화재 보존연구원 건립 등

□ 인센티브 제도 시행 등을 통한 전승활성화 촉진

-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포상) 제도 시행 (2억원)
 - 전승활동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월정 전승지원금 차등 지급 효과)
 - * 전승자 배출 · 전승활성화 노력도 평가(11월), 포상금 지급(12월)
- 전수교육관 건립 · 보수 지원(14개소 77억원) 및 미입주 종목(개인 23명, 4개 단체) 중기 지원계획 마련
- 무형문화재 전승자 확충 및 전승체계 개선
 - * 보유자 부재종목 우선 인 · 선정 및 적기 충원을 위해 모든 종목의 전승자 충원 주기적 검토(5년)
 - * 상사관리, 심층조사 등 보유자 기량 · 자질 검증 강화, 직조 · 놀이종목 등의 단체종목 전환 추진(10종목)

□ 고궁과 조선왕릉의 역사성 복원을 통한 가치 회복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 · 시행 (방재여건 및 관람환경 고려)
 - * (당초) 11년~'30년, 5,400억원, 75.8%(379동)복원→(조정) 11년~'45년, 3,000억원, 41%(205동) 복원
- 경복궁 흥복전('15년~'18년, 160억원) 및 덕수궁 복원 ('15년~'39년, 560억원)
 - *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 후 외국공사 접견 재현 등 활용 기반시설 구축
 - * 덕수궁 고종의 길 복원(16년~'17년, 17억원), 광명문 발굴조사, 흥덕전 권역 복원설계, 돈덕전 복원 연구용역 및 덕수궁관리소 이전
- 동궐(창덕궁, 창경궁)의 수중분석 및 가림시설 원형 고증 연구 및 조선왕릉 능제 복원 (영 · 영릉유적 정비, 수복방 · 수라청 복원, 역사경관림 정비 등)

□ 조사 · 지정 확대를 통한 문화재 전승기반 강화

- 자연유산의 체계적 조사 · 지정 추진 및 종합 자료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 ('16년~'17년)
 - * 미지정 천연동굴 분포지역 조사(강원 정선 2개소, 0.9억원), 제주 한탄 · 희귀란 자생지 조사(2억원), 전국 해돋이 · 해넘이 등 명승자원 조사(0.7억원)
 - * 침소 · 고욤나무 등 동 · 식물 및 조사완료된 명승자원(12년~'14년)의 자연유산 지정 추진
-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및 비지정문화재 조사 확대
 - * 국보 · 보물 동산 약 100건, 건조물 약 200건, 중요무형문화재 나전장 등 29종목, 천연기념물 약 100건
 - * 한국무형유산(비지정) 종합조사 잠정목록집 제작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불교유산 소장자(민간) 중심의 「불교문화재 보존연구원」 건립 지원 ('16년~'18년, 약 200억원) 및 도난 · 훼손방지를 위한 유물전시관 건립 (월정사전시관 등 5건)
- 지류 · 벽화 등 훼손 취약문화재 보존처리 (50건 68억원), 전국 고분군 실태조사 (2.6억원)

상시점검 수준 질적 향상	ICT 기반 재난 안전망 고도화	도난예방 및 유통질서 개선
- 중점문화재 모니터링 및 환류 - 문화재 돌봄사업 강화 -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현장 ICT 활용기반 강화 -영상모니터링시스템 구축 확대 -빅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 고도화 - 방재인프라 지속 구축·개선	- 국외 밀반출 검색 강화 - 사전예약감정제도 활성화 및 홍보 - 문화재매매업 신고제 전환

□ 문화재 상시점검 수준의 질적 향상

● 중점관리대상 문화재(56건) 모니터링 및 환류시스템 강화

- * 정기 현장점검(연4회 이내, 기간별 측정값 비교 분석), 상시 데이터 수집 및 구조안전성 등 분석
- * 환류시스템 가동(기술지도, 결과 홈페이지 공개, 매년 결과보고서 발간, 예산반영 등)

● 건축문화재 구조안전성 평가 연구 기반 구축('16년, 12억원)

- * 중요 건축문화재 진단 및 평가 시험시설 구축('16년, 206억원) 및 안정성 평가연구('18년~, 연간 3억원)

● 문화재 돌봄사업의 운영 개선 및 지도·감독 기능 강화

- * 전문인력(86명)과 상시인력(550명 내외) 교육, 문화재 유형별·공종별 표준품셈 기초마련
- * 돌봄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방식 개선(지자체 → 문화재청 주관)

*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추진

- 도입 3년간 300명 일자리 창출 (장기 2천명/지자체 및 돌봄단체 의무 배치)

□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문화재 재난 안전망 고도화

● 문화재 재난 안전관리 현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반 강화

-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확대(국보·보물 목조문화재 27건), 현장별 문화재 방재 단말기 보급·활용 (현장별 재난정보 수집, 안전점검 조치상황, 비상신고 기능 등)
- 문화재 재난안전 빅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고도화
 - * 안전점검 추적관리, 재난이력 등 분석 기능 강화, 유관기관 정보 수집 확대 등

● 문화재 방재인프라의 지속 구축 (56억원)

- * 서울 한양도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전기시설 및 등록문화재 방재시설(총 170건)

□ 문화재 도난예방 및 유통질서 개선

● 문화재 불법반출 예방 활동 내실화

- 경찰청 문화재전담수사관 교육 및 국외밀반출 검색 강화(18개 공항·항만 등), 사전예약감정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유관기관 홈페이지, 관광공사 등 안내문 배포)

● 문화재매매업 신고제 전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 보장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보)

성과목표2-3

정보기록 · 연구 강화 및 공개 확대

디지털 정보 축적 및 공개	융·복합기술 활용 보존·복원 연구	해양실크로드 조명
- 디지털정보 축적 및 공개 활성화 - 문화재 생애정보 접근성 향상 - 모바일앱 이용도 제고	- 제철기술 및 종 복원 연구 - 중원지역 고대 제철기술 복원 - 절충 위기 천연기념물 복원 및 관리 - 전통기술 복원·계승 및 기술 개발	- 신안선 복원 연구(모형제작) - 조선통신사선 복원 연구 - 전통선박 활용사업 추진

□ 문화유산 디지털 정보 축적 및 공개 활성화 (20.6억원)

- 문화유산 원형 보존·복원 3D DB 축적(지정문화재 60여 건), 문화재 보수·정비 등 기록물 DB 구축(도면·사진필름 등 6,900여 권), 문화재 공간정보(GIS) DB 확충(6천여 건)
 - * 국가문화유산포털'을 통해 문화유산 디지털정보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
- 개별 문화재 생애관리정보(지정·관리 및 수리 이력) 구축 및 접근성 향상(온라인 공개)
- 문화유산 모바일앱 이용도 제고
 - * 궁·종묘 현장홍보(관람권 QR코드 삽입 및 안내판), 이벤트(앱 사용후기 공모 등)
 - * EBS 등 방송 및 SNS, 문화관광단체(관광협회, 관광통역협회 등) 협력 홍보

□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보존·복원 연구성과 창출 (47개 자체연구과제, 170억원)

- 제철기술 및 종 복원 연구
 - 중원지역 고대 제철기술 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연구(제철유적 발굴 980㎡, 제철로 복원실험), 절충 위기 물거미, 남생이 등 복원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방안 연구(천연기념물 동물 유전자원 확보, 첨단 ICT 활용한 철새 이동경로 연구)
- 전통기술의 복원·계승 및 기술 개발
 - 전통 단청소재 제법 규명 및 품질·시공기준 연구, 세계유산 조선왕릉 석조문화재의 보존방안 연구, 중요 석탑문화재의 해체 보수 및 수리기술 연구
 - 문화재 복원용 접착재료 개발 연구(재료의 물성, 안정성 및 유해성 평가), 유기질·무기질문화재 보존 처리 및 기술 개발
-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한 「문화재 과학적 복원 연구 기본계획」 수립

□ 해양문화유산 연구 활성화로 해상실크로드 조명

- 전통선박 실물 복원 연구·활용 추진 (5.2억원)
 - 신안선 복원연구를 위한 모형제작(선재 확보 및 건조), 조선통신사선 복원 연구(2차년도, '17~'18년 실물 복원 예정)
 - 전통선박 활용, 우리문화의 우수성 공감대 확산 (9월~11월, 0.1억원)
 - * 항해성능 실험, 청소년 등 전통 항해술 체험기회 제공 및 지역축제 출품
- 「뮤지엄(Museum) 항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중점과제 3 정책품질 향상 및 국민 참여 확대

◆ (현 황) 문화재 규제 합리화, 문화재정책 품질 제고 및 문화재 보호 국민 참여 활성화 지속 요구

○ 문화재 규제 합리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국가 지원 요구 증대

* 규제건의 수용률 67.6%로 35개 전 부처·청 중 2위(34건 중 23건 수용, 규제개혁위원회)

- 역사문화환경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

* 높이 규제 외에 문화재 경관요소(건축물 용도·색채·형태 등) 적용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소규모 발굴조사, 민간 지표조사 등 국가 지원 강화 요구

* 소규모 발굴조사비 지원 : '13년 65억원, '14년 125억원, 15년 95억원

* 매장문화재 민간 지표조사(3만㎡미만) 지원 : 15년 7억원

○ 대내외 정책동향 수집·분석을 통한 문화재정책 품질 제고

-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에 대한 국민 혼란 야기(가치순서, 일제잔재 등)

-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활용 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콘텐츠 소비패턴 등에 대한 고려 부족 * 3D→4D→HMD로 급속히 발전

○ 문화재 보호 민관협력 및 기업의 사회공헌 요구 증대

* 문화재지킴이 후원 현황('12년 27억원→'13년 16억원→'14년 18억원→'15년 32억원)

◆ (추진방향) 선진적 문화재 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재 규제 합리화, 새로운 문화재관리제도 도입 및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

○ (규제 합리화) 문화재와 도시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창출, 매장 문화재 및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내실화, 중요민속문화재 등 생활 주변 문화재 규제 합리화 도모

○ (정책품질 향상) 선진적 문화재관리제도(문화재활용법, 역사문화환경제도) 도입, 새로운 무형법의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제시

○ (국민참여 활성화) 기업협약의 모범적 모델 발굴 및 기업의 문화재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문화재지킴이 운영 개선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창출	국가지원으로 문화재와 국민 상생	생활주변 문화재 규제 합리화
◦ 역사문화환경 시범사업 확대 ◦ 역사문화환경 건축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 민간지표조사, 소규모 발굴조사 - 긴급수습 발굴조사 ◦ '고도 이미지찾기사업' 내실화	◦ 매장문화재 법령 개정·관리 강화 - 보존유적의 관리지원 근거 마련 등 ◦ 중요민속문화재 편의시설 정비 등 ◦ 천연기념물 등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 문화재와 도시가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창출

-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 대상 확대 (50억원)
 - 문화재형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한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수립
 - *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 등 4개소
 - * 문화재와 조화되는 건축물 관리계획, 디자인 조성방안, 주민참여 등 세부계획 수립
- 「역사문화환경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 권장 건축행위를 용도·배치·규모 및 디자인 분야로 구체화하여 지침 제공
 - * 허가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자발적 준수 유도

□ 국가지원을 통한 문화재와 국민의 상생 분위기 확산

- 매장문화재 조사지원으로 국민 편익도모
 - 민간지표조사(285건, 7억원), 소규모 발굴조사(246건, 89억원)
 - 수해·도굴 등 긴급 수습 발굴조사 국가 지원(14건, 14억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내실화 (2차년도, 국비 80억원)
 - * 집행절차 개선, 사업 모니터링 및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으로 사업의 성공적 정착 유도

□ 생활주변 문화재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정 및 관리체계 강화
 - * 보존유적의 관리지원 근거 마련, 지표조사 결과 검토시스템 구축·운영(연간 1,300여건), 발굴조사 현장 모니터링(600개소) 및 매장문화재 조사전반(지표조사-처분-발굴조사)에 대한 검증 강화
- 중요민속문화재 생활편의시설 정비 및 가옥 신축지침 마련
 - * 보수·정비 시 생활편의시설 검토·반영, 민속마을별 나대지 건물 신축 허용 등
- 천연기념물·명승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제주 수산리 곰솔 등 18건)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 *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현황 : ('08년) 84건, ('09년) 58건

창의적 문화재 관리제도 도입	법령과 제도 운영의 불일치 개선	문화재 정책 중장기 발전역량 기반 구축
- 문화재활용법 제정 추진 - 선진적 역사문화환경 제도 도입 - 역사문화환경 건축가 제도 도입 연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지침 도입	- 새로운 무형문화재법의 안정적 정착 - 문화재수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 근대문화유산 발굴 및 등록	- 문화재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중장기 개선 추진 - 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 등 개편

창의적 문화재 관리제도를 통한 정책 품질 향상

- 「문화재 활용법(가칭)」 제정 추진
 - 문화재 활용 시 보존·활용원칙 등을 법제화, 활용에 대한 부정적 논란 불식
 - 문화재 활용위원회 설치·운영, 활용사업 지원 및 대가기준 근거 마련 등
- 선진적 역사문화환경 제도 도입 추진
 - ‘역사문화환경 건축가 제도(가칭)’ 도입 타당성 연구
 - 전문건축가 설계자문 제공, 문화재와 조화되는 건축 유도(소극적 허가제도 탈피)
 -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지침」 도입
 - 도시계획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한 역사문화환경 필수 고려사항 지침
 - 영국 PPS(Planning Policy Statement) : 도시계획 시 문화재 고려 지침

법령과 현실적 제도 운영 간 불일치 개선 및 합리화

- 새로운 무형문화재법의 안정적 조기 정착 기반 마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16.3.28.)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연중)
 -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규정 등 행정규칙 10개 제·개정
 - 무형문화재위원회 구성(3개 분과, 30명) 및 운영지침 마련(16.3.28)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개년, 17년~21년) 수립
- 문화재수리체계의 지속적 개선으로 정책품질 향상
 - 수리기술(기능)자 경력관리제도, 책임감리제도 등 도입
 - 동산문화재 및 건조물문화재 제도의 합리적 조정
 - 동산문화재수리법 제정(안) 및 동산문화재 분류별 지정 기준 마련, 건조물문화재(국보·보물) 수리결정체계 등에 관한 규정(15년 마련) 시범적용 추진
- 근대문화유산 발굴 체계화 및 등록 다양화
 - 등록기준 확대(점→선, 면 단위)를 통한 근대유산 발굴,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및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 정책의 중장기 발전역량 기반 구축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7~21년)」 수립
 - 기본계획(안) 마련 T/F 운영(1월~9월), 전문가·지자체 등 의견 수렴 등
 - 17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세부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15년 연구용역 결과 토대)
- 문화재 분류·지정체계 중장기 개선 추진
 - 문화재 지정번호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과 연계, 분류·지정체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검토
- 문화재위원회 구성·운영 등 개편 검토 (무형문화재위원회 독립과 연계)

기업협약 모범사례 발굴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문화재지킴이 운영 개선·교육 내실화
- 무형문화재 ‘명인·명장관’ 개관 - 신세계면세점 전통문화상품관 입점	- 기업 참여·후원·파트너십 활성화 - 국민신탁 협약모델 개발 추진	-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활성화 - 대상별 맞춤형 활동지원 및 교육 내실화

□ 기업협약(신세계면세점) 대표모범사례 발굴

- 기업지원을 통한 무형문화재 공예품의 판매 증대 및 활성화
 - ‘명인·명장관’ 개관·운영(국산의 힘 센터 內 10월) 및 신세계면세점(서울점)에 전통문화상품관 입점 (5월)
 - 침체해있는 무형문화재 차세대 전승자 양성 및 상품화로 개척
 - * 문화재청·신세계면세점 MOU 체결 (15.11.10.)
 - * 국산의 힘 센터 : 신세계면세점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건물(서울 명동, 7개 층)

□ 기업의 문화재분야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문화재지킴이 참여·후원·파트너십 활성화
 - * 협약기업의 재정적·기술적 자원 공유
-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 사회공감대 형성 협약모델(New Governance) 개발 추진
 - * 기업·시민사회·정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문제해결

□ 문화재지킴이 운영 개선 및 교육 내실화

- 문화재지킴이 사업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활성화
 - 민간 역량 강화·전문성 활용, 운영부담 경감 및 운영 체계화 (운영지침 마련 등)
 - * 직접 운영→간접 운영(문화재지킴이단체전국연합회·문화유산국민신탁 주관)
- 문화재지킴이 대상별 맞춤형 활동지원 및 교육 내실화
 - (활동지원) 청소년 문화유산교육 연계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대학생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단체 우수사업 공모·컨설팅 지원, 지역단체 “내 고장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 (상·하반기 각 1회)
 - (교육 내실화) 기본교육(연 40회 이상) 이수 후 문화재지킴이 (재)위촉, 위촉기간(2년) 중 기본 또는 심화교육(연 20회 이상) 실시, 기본·심화 교육과정에 ‘기본윤리의식’ 교육 의무화

중점과제 4 세계유산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

◆ (현 황) 세계유산 등재 국가 경쟁 과열 및 문화재 환수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 심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둘러싼 한·중·일 경쟁 과열 및 역사 갈등 심화
 - * 등재 현황 : 세계유산(韓 12건, 中 48건, 日 19건), 기록유산(韓 13건, 中 10건, 日 5건), 인류무형유산(韓 18건, 中 30건, 日 22건)
 - * 등재 경쟁과열 및 역사 갈등
 - － 경쟁(잠재) : 인류무형유산 (韓中)씨름,중추절 등, (韓日)해녀문화
 - － 역사 갈등 : (韓日)군함도(15년 세계유산 등재), (中日)난징대학살 기록물(15년 기록유산 등재), 위안부 기록물(기록유산 미등재)
- 세계유산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방안 마련 필요
- 문화재 환수 국제법상 강제수단 미비로 문화재보유국의 협상 기피
 - 한미 수사공조 강화, 피탈국 국제연대 등의 환수대책 개선 필요
- 남북문화재 교류 활성화로 문화유산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추진

◆ (추진방향) 세계유산 등재 및 불법반출 문화재 적극 환수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 공조 강화

- (세계유산 및 국제협력)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 홍보, 국제기구 활동 및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사회 참여로 위상 강화
- (문화재 환수) 실태 · 출처조사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국제 · 민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 · 전략적 환수 추진
- (남북교류) 남북 공동 발굴조사 지속 추진, 북한 소재 역사유적 공동조사 지원 등 문화유산을 통한 남북 화해와 협력의 토대 마련

성과목표4-1

세계유산의 전략적 등재 및 국제협력

세계유산의 체계적 관리·홍보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 발굴·확대	국제교류 네트워크 및 국제사회 기여
-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시범 운영 및 보존·관리 지원 - 세계유산 해외 홍보·콘텐츠 개발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7월) (인류무형유산) 제주해녀문화(11월) (기록유산)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등 2건 등재신청서 제출(3월)	- 국제기구 활동·교류 활성화 - 공적개발원조(ODA)을 통한 국제사회 참여

□ 세계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 활성화

- 세계유산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및 보존·관리지원 (243억원)
- 세계유산 홍보 및 세계유산별 특화 활용콘텐츠 개발 (12.3억원)
 -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홍보물 업데이트, 백제역사유적지구 미디어 파사드 등

□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적 발굴·확대

- 세계유산의 발굴 및 등재 관리 활동
 - * (세계유산) 17년 등재신청서 제출(‘한양도성’, 1월/등재결정 17.7월), ‘한국의 서원’ 등재 결정(7월)
 - (인류무형유산) 17년 등재신청서 제출(칠공예·씨름, 3월/등재결정 17.11월), ‘제주해녀문화’ 등재 결정(11월)
 - (기록유산) 17년 등재신청서 제출(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등 2건, 3월/등재결정 17.10월)
 - * 경쟁력 있는 잠정목록 발굴 강화(기존 잠정목록 재검토, 신규 잠정목록 발굴 등)

□ 국제교류 네트워크 및 국제사회 기여도 강화

- 국제기구 활동 및 교류 활성화로 국제위상 강화
 - *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7월),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11월) 등 참석
 - * 문화재 대표단 교차방문(한·중, 한·베트남) 및 양자교류 양해각서(MOU) 체결(16년 인도)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국제사회 참여
 - 협력국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14억원)
 - * 라오스(참파삭 홍낭시다 유적) 보존·복원 및 고증연구, 캄보디아(프레아피투 유적, KOICA 부처 제단사업) 보존·복원, 미얀마(바간 유적) 기초조사 및 구조 모니터링
 - * 협력국 문화재 복원을 위한 장비 지원
 - 협력국 무형유산 보호제도 구축 지원 (1억원)
 - * 캄보디아·라오스 무형유산 목록작성 및 영상기록화 지원

성과목표4-2

국외문화재의 체계적 환수 · 활용

실태조사 강화로 환수토대 마련	국제 · 민관 협력 강화	현지 활용 · 홍보
• 실태조사 강화 (민간 중점 조사) • 출처조사 확대 (미국 · 프랑스 등) • 외국경매소 모니터링 강화	• 환수전문가 국제회의 계기 여론 조성 • 불교문화재 환수협력 강화 • 유네스코당사국총회, ICPRCP 등 활동 • 한 · 미 수사공조 활성화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개관 • 외국 소장기관 활용 지원

□ 국외문화재 환수 조사 · 성과의 연계성 강화

- 국외 소재 문화재의 심층조사 실시 (3월~12월, 6.6억원)
 - 일본 · 중국 조사 강화 및 민간 소장품 중점 조사 (최대 7천점)
 -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 조사체계 일원화 추진
- 국외 소재 문화재 출처조사 확대 (3월~12월, 1.3억원)
 - ('15년) 일본 → ('16년) 일본 · 미국 · 유럽 등으로 확대
 - * 문화재 반출의 불법 · 부당성을 입증하는 환수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 외국경매소(Christie's, Sotheby's 등 220여개) 모니터링 강화 (3월~12월, 0.5억원)
 - ('15년) 온라인 중점 → ('16년) 온라인 · 오프라인 (아트페어 등) 병행

□ 국제 · 민관 협력으로 국외문화재 환수 여건 조성

-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계기 환수여론 조성 (10월, 2.4억원)
 - * 오구라컬렉션, 이천오층석탑 등 환수 국제적 여론 조성계기로 활용
-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를 위한 불교계-문화재청 간 협력 강화(연중)
- 유네스코협약 당사국 총회(9월), ICPRCP(문화재 반환 촉진 정부간 위원회/9월) 정기회의 등 활동 강화, 한 · 미 수사공조 활성화(상시 협의체계 마련 및 추진/연중)

□ 국외 소재 문화재의 적극적인 현지 활용 · 홍보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원형 복원 및 전시관 개관 (하반기)
 - * 복원공사 및 전시물 구입 · 제작 · 설치 등
- 외국 소장기관의 우리 문화재 활용 지원 (3.5억원)
 - * 미국 프리어 새클러 갤러리(고려불화 조사 · 활용) 등 10여개 기관

성과목표 4-3

남북 문화재 교류 · 협력 활성화

남 · 북 공동조사 지속 추진	멸실 · 훼손 위기 문화재 보존지원	남북문화재 교류협력기반 조성
• 개성 고려궁성 발굴조사 확대 •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추진	• DMZ內 공예도성 공동학술조사 • 북한 소장 고문헌자료 공동조사 •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등	• 남북문화재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 북한문화재 현황 조사 및 민족 문화유산 통합 DB 구축

북한 문화유산 남북 공동조사 지속 확대 추진

-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공동발굴, 유적보존사업 확대
 - 개성만월대 제8차 남북공동 발굴조사 (서부건축군 일부 약 7,000㎡, 6개월 이상), 발굴유적 보존정비 등
-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공동발굴조사 추진
 - 평양 대성동 고구려고분 발굴조사 (고분 1기, 2개월 예상)



【고려궁성 현황도】

멸실 · 훼손 위기의 북한문화재 보존지원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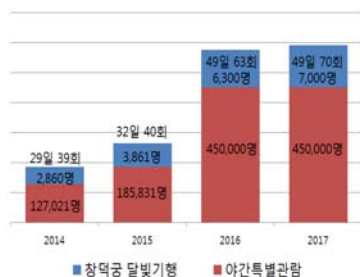
- DMZ 內 철원 공예도성 남북 공동 학술조사 추진 (유엔사 · 국방부 협조)
- 북한 소장 고문헌자료 조사 및 DB구축 사업 지원
 - 남북 학계 간 공동조사 추진, 북측 자체조사 지원 후 성과공유 방안 모색
- 세계유산(금강산 · 설악산 등) 남북 공동 등재 추진
- 천연기념물(크낙새, 장수하늘소 등) 남북 공동 조사 · 연구 · 복원 추진
- 북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자재 지원 (항온 · 항습기 등)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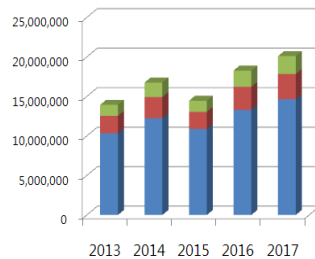
- 남북문화재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통일부 남북 당국회담 의제 제안)
 - 남북 문화유산 사업 총괄, 문화유산 당국 간 상시 협력 채널 가동
- 북한 문화재 현황조사 및 민족유산 통합 DB 구축
 - 북한 소재 지정 문화재, 고문헌 등 유형별 · 분야별 현황조사

IV 정책 실현 후, 달라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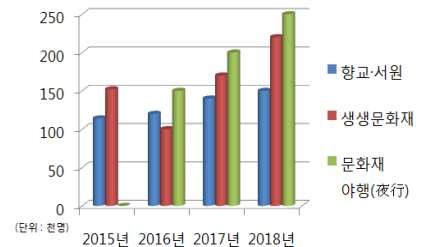
□ 문화유산 고급화 · 생활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문화복지 실현



창덕궁 달빛기행 및 야간특별관람 관람객 증가



고궁·조선왕릉 중국인 관광객 증가(단위: 명)



지역문화자원 활용프로그램

● '창덕궁 달빛기행' 등 대표브랜드의 인기 증대 및 향유기회 확대

- 고궁·조선왕릉 등 핵심 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킬러콘텐츠' 지속 성장

* 창덕궁 달빛기행 : (15년)32일, 40회, 3,861명 → (16년)49일, 63회, 6,300명 → (17년)49일, 70회, 7,000명

* 야간 특별관람 : (15년)4회, 48일, 185,831명 → (16년)4회, 120일, 450,000명

● 일본에 추월된 중국인 관광객 대상 타겟 마케팅으로 새로운 「고궁 한류(韓流)」 부흥

* (내소주방)궁중음식 전시, (외소주방)궁중음식 체험, (생물방)궁중병과체험

●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로 문화복지 평등화, 역사인식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문화자원 활용프로그램 [향교서원, 생생문화재, 문화재 야행(夜行) 프로그램], 유적과 현대미술·정보통신기술 융합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고도(古都) 이미지 개선을 통한 역사문화자원의 브랜드화

□ 예방적 상시점검 · 안전관리로 국민이 신뢰하는 문화재 환경 정착

● 문화재 돌봄사업의 전문인력 배치(수리가능자 등)로 경미한 수리, 안전진단 등의 전문성 확보 및 보수정비의 적시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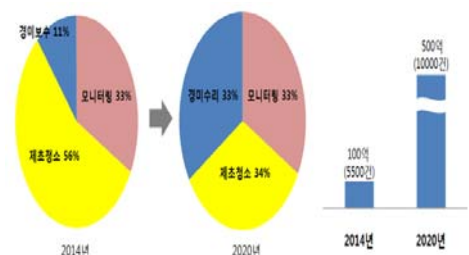
* 돌봄사업 업무비율 : (단순관리) 56% → 34%(22%감), (경미 보수) 11% → 33%(22%증)

● 방재단말기 보급으로 문화재 현장의 재난 안전상황을 실시간 관리

* (16년)시범운용(10개소) → (17년)전국 확대(132개소)

● 즉각 현장 대응 가능한 방재시설 확대 구축

* (16년) 지정문화재 508건, (18년) 등록문화재 161건, (20년) 동산문화재 소장처 108건 완료



<돌봄사업 활동별 비율>

<예산 및 관리대상 문화재 건수>



【문화재 방재단말기를 통한 현장 실시간 관리】

☐ 문화재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불편 완화 및 만족도 증가

- 역사문화환경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허가의 투명성·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문화재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 도시설계·도시계획적 기법을 적용·확산, 문화재 가치를 극대화한 역사문화 공간' 적극적 조성 실현

- 고도 정체성 회복 및 주민지원 정책을 통해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 확립 및 살고 싶은
고도(古都) 인식 증대

* 고도 세계유산 방문 관람객수 : (14년) 347만명,
(15년) 363만명, (16년) 436만명
* 고도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 (15년 이전) 63.4%, (16년 이후) 73% 목표



【건축 형태별】



【건축 용도별】

* 도시설계 기법 적용 사례 (나주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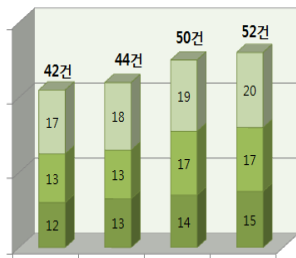


【고도 세계유산 방문 관람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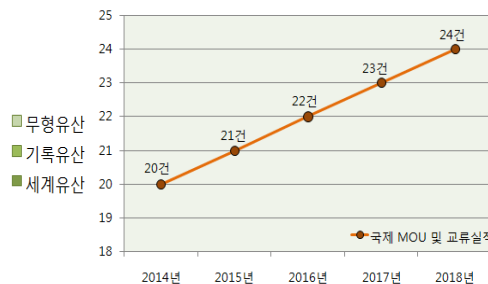


【고도 주민으로서의 자긍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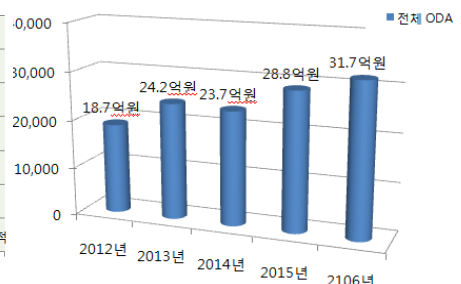
☐ 세계유산 등재 및 국제협력 강화로 국제위상 향상



【세계유산 등재 추이】



【국제 MOU 및 교류 실적 추이】



【문화재청 ODA 사업 추진 실적 추이】

-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기록유산)의 지속 등재를 통한 관광자원화
 - * (15년 누계) 43건(12,18,13), (16년 누계) 44건(13,19,13), (17년 누계) 50건(14,20,15), (18년 누계) 52건(15, 21,15)
 <위 ()안의 숫자는 세계유산,인류무형유산,기록유산 順>
- 국제 MOU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를 통한 국제위상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 * 매년 최소 1개국씩 확대 추진
- 국외소재문화재의 실태조사의 확대 실시로 전략적 환수기반 마련

1. 임 무 :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계승과 국민생활의 문화적 향상 도모

2. 조 직 : 차관청 ('04.3월), 정원 914명 (1관 3국 19과 1팀 14소속기관)

3. 문화재관리 재정

(단위 : 억 원)

구 분	13년 예산	14년 예산	15년 예산	16년 예산	비 고
계	6,148	6,199	6,887	7,311	
일반회계	4,921	5,072	5,700	6,111	
지특회계	162	98	134	147	
문화재보호기금	1,065	1,029	1,053	1,053	10년 도입

4. 문화재현황 : 총 12,484건('15. 12. 31. 기준)

○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 4,287건

- 국보 317건, 보물 1,842건, 사적 491건, 명승 109건, 천연기념물 455건, 중요무형문화재 122종목, 중요민속문화재 286건, 등록문화재 665건

○ 시·도지정문화재 5,600건, 문화재자료 2,597건

♣ 유네스코 등재 유산 43건 : 세계(문화·자연)유산 12건, 세계기록유산 13건, 인류무형유산 18건

5. 소관법령 및 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62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04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06제정), 「문화재보호 기금법」 ('09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제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10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11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5제정)

○ 「문화재위원회 규정」 ('62제정)

6. 문화재위원회

○ 9개 분과 68명 (겸직 포함 82명/ 전문위원 186명) / 임기 2년 ('15.5.1~'17.4.30)